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기**

중성을 담은 편지가 이제는 봉투도 우표도 없는 전자우편으로 되살아 나고 있다. 그것도 쓰기 쉽고 읽기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보내는 즉시 받아보는 신속성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평균 2개의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으며 하루 평균 한통 안팎의 이메일을 보낸다는 집계도 나왔다. 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클릭 한번으로 수천~수만통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가중감만 큰 힘을 갖게된 것이 이메일이다.

이메일은 개인적인 사연 전송은 물론이고, 행정 관청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도 여론수렴이나 민원접수와 처리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지침을 세워놓은 정도이다.

바른 글쓰기 등 E메일 주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지침을 세워놓은 정도이다.

그런데 이 편리한 이메일 이용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 편지쓰기를 배울때도 기본 예절을 익혔듯이 이메일도 예의와 중요성을 가르치고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어법이나 철자법을 무시하는 내용을 예사로 생각하는 습관은 글물이라는 것. 이메일 수신자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스님은 "무슨 얘긴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맞춤법이 엉망인 이메일을 받으면 답답하다"면서 좋은 이메일 쓰기는 간단 명료함을 전제로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제시한다.

특히 불자들도 관심을 보일만한 업체에서 무작위적으로 보내는 광고용 E메일에는 짜증이 난다고 호소한다. 쓸모없는 E메일을 열어보고 정리하느라 드는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피해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취영란 기자(jryul@buddhapia.com)

'국군불교 총신도회' 결성

불교회관 건립-군불자 인명록 작성 등 군정토화 추진

초대회장에 이종욱 중장

육·해·공군 불자회의 결집체인 국군불교총신도회가 결성됐다. 이에따라 불교에 관심을 가져왔던 군장병에게 부처님 말씀과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군불교총신도회(Military Buddhist combined Association of Korea, M.B.A.K)는 2월 25일 서울용산동 국방회관에서 500여명의 군장병 및 예비역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 경축대법회를 봉행하고 공식출범을 알렸다. 초대회장은 이종욱 중장이 추대됐다. <인터뷰 4면>

국군불교총신도회는 군불자들의 신앙심 배양을 위한 규칙적인 기도생활, 불경공부, 친교

활동을 활성화하고, 군정토화 사업을 위해 군포교 유관기관인 조계종 포교인, 사찰과의 협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효과적인 회원관리를 위해서 신도교역 관리 및 신도증 발급을 추진하고, 극대장교불자회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세계포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총신도회 본부로 사용할 불교회관 건립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및 현역·예비역 장병을 모두 포함하는 군불자 인명록 작성작업을 이르면 시일내에 착수할 계획이며, 매년 5명의 모범군불자를 선발해 국내외 성지순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1년 내에 각 군



국군불교총신도회 2월 25일 결성식에 따라 타종교에 비해 취약했던 군포교 포교 및 신행함 등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라고 말했다. 수석 부회장은 수국사 주지 자용스님, 부회장은 한규정각스님 취임식

국군불교총신도회 제2대 회장 정각스님(법종종 종정·사진) 취임식이 2월25일 국방회관에서 봉행됐다.

정각스님은 취임사에서 "방생 중 으뜸은 인간방생이고, 불사 중 으뜸은 인재불사"라며 "앞으로 국군불교총신도회는 종단 종파를 초월하는 통불교적 입장에서 군포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조계종 등 조불련과 북경회동

8~16일 사이...초파일 공동법회 등 논의

종단협의회와 조계종 태고종 전대종 진각종 총지종의 대북 불교교류 담당자들은 23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제안한 북경회동에 대해 논의하고 조 불련과의 회동 일정을 8~16일 사이로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 불련이 요청한 조불련-각 종단 간 별도의 회동은 수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모임에서는 또 부처님 오신날 남북불교도 공동법회와 남북불교 학술세미나 개최와 관련해 조불련측에 확실한 개최 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종 단협의회와 각 종단은 두 행사

3·1정신 받들어 그날처럼 하나되자

종교인 333인 선언문 공개

3월 1일 온거레순잡기운동 본생사에서 남독일 '화해와 평화'를 향한 종교인 333인 선언문'이 최종 확정됐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온거레순잡기 운동본부(상임공동본부장 정대)는 2월 21일 본문과 우리의 다짐으로 구성된 선언문을 공개했다.

7개 종교를 대표한 종교인 333명은 선언문에서 "오늘 이 땅의 총체적인 사안은 종교인들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성하고 "3·1정신으로 손에 손을 잡고 그 날처럼 하나가 되자"고 호소했다.

종교인들은 또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숭순수범 △고종말은 종포와 이웃을 위하여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 앞장서자 △인류와 만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새 세상을 이루고자 합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운 기자

참여연대 '문화재 관람료' 반환소송

조계종, 적극 대처키로

참여연대의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 준비 및 토론회 개최와 관련, 조계종은 2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사찰과 스님들은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지켜온 주체이며, 전체 국립공원 지역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찰 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국 민의 정서향양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며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소송과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주중(날짜 미정) 관람료사찰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작은관리찾기운동본부 조영연 간사는 2월 23일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소송과 조계종

"승가대 이전-성보박물관 건립 지원"

문화부, 불교계 대정부 요구사항 답변

문화관광부 김순철 총무실장은 2월 21일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총무실장은 중앙승가대 이전을 위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사학진흥재단 기금 60억 원 을 용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상 어렵다며 서울·경기지역에 성보박물관을 지으면 5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일 램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불기2544년 봉축 현수막

등 접수합니다.

규격: 55cm × 4m

불기 2544년 5월 11일(음)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00종 00사

규격: 90cm × 6m, 8m, 10m

취급 품목: 리본, 어깨띠, 세계불고기, 법륜기, 감사패 등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태영합장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수리사, 해광사, 정토사, 일선사, 반야사, 도광사

사찰 연혁 게시판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현수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형

우리집소식판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직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규격 40cm × 10cm

이곳은 스님들의 수행기도도량이니 고성방가 및 흡연 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사 주지

참배후 축분을 꼭 끼주시기 바랍니다.